
碩士學位論文

靑少年的 自我正體感 발달과
家庭生活 및 學校生活 適應에 관한 研究

- 濟州市 高等學生을 대상으로 -

指導教授 金良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玄 喜 舜

1998年 8月

青少年的 自我正體感 발달과
家庭生活 및 學校生活 適應에 관한 研究

- 濟州市 高等學生을 대상으로 -

指導教授 金 良 順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玄 喜 舜



玄喜舜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국문초록 >

靑少年의 自我正體感 발달과 家庭生活 및 學校生活 適應에 關한 研究

- 濟州市 高等學生을 대상으로 -

玄 喜 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良 順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교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정도를 알아보므로써 그들의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 미래계획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주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761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일원변량분석, 던컨의 다중범위검증, χ^2 -test 등의 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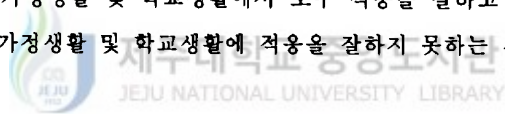
첫째, 성별, 출생순위,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동거가족의 청소년이 결손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 보다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대상으로는 부모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 유·무, 출생순위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하위요인 중 「독특성」에서,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였다. 상담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에서 부모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의 학력은 가정생활 적응에서, 모의 학력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부모가 고졸 이상 학력일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의 직업에서는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의 직업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은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였으나 모의 직업은 수준차이가 없었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정체감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는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지만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청소년의 특징	4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6
3.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12
III. 연구방법	19
1. 조사대상	19
2. 측정도구	19
3. 자료수집	21
4. 분석방법	23
IV. 분석결과 및 논의	24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4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27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31
4.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38
5.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	40
V. 결론 및 제언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2
부 록 : 설문지	54

표 목 차

표 1	자아정체감의 지위구분	12
표 2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문항	22
표 3	표집학교 및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	22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 5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27
표 6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28
표 7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30
표 8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31
표 9	출생순위와 상담 대상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33
표 10-1	부모의 연령,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35
표 10-2	부모의 직업,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37
표 11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39
표 12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중간적 위치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뿐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의 현실에 순응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기를 형성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청소년기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신체적·생리적으로는 이미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이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학교교육 역시 전인교육보다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과중한 입시위주교육에 치중하므로써 청소년들은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고 바르게 정립해 갈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할 발달과업 중에 “자아정체감”이 있다. 이 용어는 Eriks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나는 누구인가?’, ‘.....로서의 자기’를 수시로 선택하고 찾기 위하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¹⁾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정, 사회,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일차적 환경이며 애정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또한 생활경험과 문화전달 및 습득과 인격형성의 장소인 동시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1) E.H.Erikson(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W .W. Norton, p.219.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아수용 또는 자아거부의 태도를 결정짓는 장소로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학교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동기·태도 등의 행동경향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학습의 장소로서 학교는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가정과 학교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가는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업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인 가정환경,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의 관계, 학업성취와의 관계³⁾⁴⁾⁵⁾등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주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분석하고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차이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자기이해를 돕고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김미숙(1989),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3.
- 3)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4) 조미란(1989),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5) 박미연(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하고 자아정체감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자아정체감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과는 어떠한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표집대상을 제주시 고등학교 중 10개의 학교에서 2학년 학생으로만 국한하였으며 조사내용에서도 가정생활에서는 부모-자녀관계, 가족구조, 부모와의 응집도, 학교생활에서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과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adolescence)이란 말은 라틴어로 성숙하게 자라다(to grow into maturity)와 성장하다(to grow up)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adole+scere) 것이다.⁶⁾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11~20세경까지를 말하며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변화는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급격하고 뚜렷하므로 제 2의 탄생이라고 부르고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행동과 어른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새로운 적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중간한 상태라고 청소년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이며 각 단계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쉽게 어느 것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적 성숙에서 오는 우월을 과시하여 성인 세계에서 행동하려 하지만 심리적·사회적·지적인 미성숙에서 아동의 세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인간을 교육학에서는 주변적(marginal)인간이라 부른다.⁷⁾

따라서 청소년기⁸⁾란 한편으로는 아동기의 의존과 보호를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6) 박미연(1992), 전개논문, p.1.

7) 최석연(1977),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p.3.

8)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심리학」, 양서원, p.9.

청소년기 : 1904년 G. Stanley Hall이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이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세-24세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1-12세경부터 시작하여 18-20세 경까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이들을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와 고교 및 대학시기의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 and youth)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R. McAllister⁹⁾는 청년기의 특성을 욕구의 방향으로 규정하였다. 즉 청년기는 자아 개념 획득·성적역할의 인식·가정에서의 분리·직업선택 등에 의한 정체감의 욕구와 인생의 방향모색·교우관계 등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려는 개성의 욕구, 자아의 하부구조와 기능이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된 목표를 지니려는 자아통합의 욕구,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독립의 욕구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R. Havighurst는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각 시기마다 습득해야 할 발달과업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발달과업이란 적절히 습득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러한 행동습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행동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는 중요한 행동형태이다¹⁰⁾.

청소년의 행동반경은 가정에서 학교로 확산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교우집단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집단 구성원들로부터의 승인과 소속 여부는 사회성 발달 및 건전한 정서발달과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¹⁾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특징과 발달과업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여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 주므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 자신과 부모와 교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9) R.T.McAllister(1970), The Adolescent and the Problems in Adolescent Psychology, Berkley : Mrcutohan Publishing, pp.238-245.

10) R.T.Havighurst(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ckay, pp.101-107.

구체적인 발달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동년배와의 새롭고 성숙한 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의 습득. 둘째, 자신의 체격을 인정하고 성역할 수용. 셋째,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넷째,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인식. 다섯째,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 여섯째,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적기능과 개념의 발달. 일곱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형성과 실천. 여덟째, 행동의 지표로서의 가치체계의 형성과 습득 등이다

11) 고순복(199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1) 자아정체감의 정의

‘아이덴티티’ (identity)란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정황에 따라 동일성, 주체성, 자기 정의, 존재 증명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봉연(1975)의 집중적인 연구 이후, ‘정체감’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아정체감’으로 번역이 된 ‘ego ident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identity란 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에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것의 자기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²⁾

이 용어는 Erikson이 1950년대에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의미로 도입되어 인간이해의 한 개념적 틀로 발전되었다. 그는 ‘identity’의 개념을 더 중시했는데 이것은 자기(self)나 자아(ego)는 성격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dentity’는 확장된 self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¹³⁾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garet¹⁴⁾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인데 즉 그것은 행동이나 사고 혹은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것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 인식은 나를 보는 타인의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첫째, 인간성 : 자신

12)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중앙적성출판사, p.21.

13) L.Breger(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김희영(1986), 전개논문, p.5에서 재인용.

14) A.L.Margaret(1985), Adolescenc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p.1.

이 인간이라는 느낌. 둘째, 성별 :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느낌. 셋째, 개체성 :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넷째, 계속성 :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Dignan¹⁵⁾은 자아 내에서의 갈등 즉 정체감과 역할혼미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심리 사회적 입장을 취하여 '자아 정체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발달된 것으로 자기를 묘사해주는 자기상들의 복합체이며 生來的으로 미리 짜여진 어떤 機制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에서 추출되고 통합된 자기상' 이라고 정의하고 그 구성요인을 자기의 감각, 독자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서봉연¹⁶⁾과 김성태¹⁷⁾는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각각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 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과 무의식적인 노력'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자기주체성' 으로서 자기자신이 분리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으며 계속 일관성이 있는 존재라고 보아 이를 확고히 지니게 되면 인간관계와 자기자신의 특질 및 고유성 그리고 소임을 정당하게 파악하여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주체성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성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식적·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15) S.M.H.Dignan(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 No. 5, pp.476-483.

16)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서봉연,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청소년심리학」, p.61.

17) 김성태(1981), 「발달심리학」, 법문사, p.251.

2) 자아정체감의 발달

Erikson¹⁸⁾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출생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생동안 계속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정체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청년기이며 이때 자신의 존재, 사회적인 역할, 자신의 목표와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의도와 힘 등을 의식하게 된다고 한다. 자아정체감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개인이 접촉하고 확대해 가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성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⁹⁾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정체감은 성장하면서 점차 세계적인 정체감(Universal Identity)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춘재²⁰⁾는 Erikson의 8단계 중 자아정체감 형성시기인 5단계는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형성시기로서 아동들은 전 단계에서 기본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차례로 획득해 나가면서 미숙한 형태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상(self image)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5단계에 접어들면 자아정체감 정립의 문제가 의식적인 수준으로 부각되어 문제가 심각해 진다. 정체

18) E.H.Erikson(1963),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윤진·김인경 역(1988), 중앙적성출판사, pp.285-314.

19) 심계전(1985),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16-17.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영아기, 0-1) : 어머니와의 수유와 접촉에 의해 최초의 유대감 형성.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회의(유아기, 1-3) :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의해 자율화의 기본이 형성됨.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성격발달 형성.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유치기, 3-6) : 놀이를 통하여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연결을 시도하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아동기, 초등학교 시기) : 학교라는 사회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또래집단과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성장. **5단계**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청소년기) : 집단 지도자와의 대인관계를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모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6단계** 친밀감 대 소외감(성년기) : 다른 사람들과 우정적인 유대를 맺으므로써 친밀감 형성. **7단계** 생산성 대 침체성(장년기) : 직장과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발휘. **8단계** 통합성 대 절망감(노년기) : 자신의 생을 정리·통합하며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되어 세계적 정체감으로 확산하는 단계.

20) 이춘재 외(1995),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pp.117-121.

감 형성의 과정은 거듭나는 짜임새의 형성으로 나타나며 이 짜임새는 아동기를 거쳐 오는 동안 계속되는 자아통합과 재통합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되어 간다. 정체감의 형성은 개인의 신체 특성, 욕구, 능력, 동일시, 방어, 승화,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인들이 그 개인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생득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특성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신체적 강약, 외모, 감각적 특이성 등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일차적인 준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내부에서 끓어 오르는 본능적 충동이 이 시기 젊은이들의 정체감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충동들이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이 자기자신과 일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생리적 충동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정체감 혼미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적 측면 못지 않게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 시기의 청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나 성적 충동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것이다.

청년기에 들어서면 자아를 느끼게 되며 자신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찾게 된다. 청년들은 아직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려 든다. 어떤 청년들은 서둘러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나머지 자기자신과 자신의 이상, 자신의 대립자나 적을 고정관념으로써 규정지워 버리는 수도 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국가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에 동조하므로써 집단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청소년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데 개인의 정체감에는 여러 가지 동일시가 포함된다. 여러 부분적인 동일시들을 개인의 고유한 전체성으로 통합해 나갈 때 비로소 일관된 자아정체감을 이룰 수 있다. 또래집단 또는 사회의 다른 집단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의 지도자-교사, 종교지도자, 학자, 정치가, sports man, 연예인-들이 자신의 모델이 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모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누구를 자기 삶의 모델

로 선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Hawthorne²¹⁾의 「큰 바위 얼굴(The Great Stone Face)」은 주인공 Ernest를 통해서 어린시절 자신이 선택한 모델과의 동일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통일성과 방향성을 상실하면 정체감의 혼미를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 단계의 갈등은 정체감 성취 대 정체감 혼미상태로서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청년들의 고뇌는 점점 심화되어가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이 시기를 정체감 위기라고 했다. 정체감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자기 탐색과정에서 정착할 바를 찾지 못하고 표류할 때 밀어닥치는 무실체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행 또는 범죄 청소년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정체감(negative identity)을 형성해 버리고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정체감 위기 상태에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심리·사회적 유예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청년기를 가리켜 자아정체감 정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자아정체감 정립이라는 이 발달과업이 청년기에만 한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 단계들에 있어서의 여러 성취가 모두 이 시기의 정체감 정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기의 희망과 설계 그것들로부터 기대되는 성취들과의 연관 속에서 정체감의 정립 방향이 좌우된다는 것이다.²²⁾

각각의 발달단계마다 성공과 실패를 대비시켜 개체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모두 발달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고 위기가 발생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들 각각의 위기는 모두 대립되는 인격형성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며 그 단계의 위기를 나타내는 상호 대립된 특성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써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가능하고 자아통합의 원만한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²³⁾

Block²⁴⁾은 자아정체감을 세가지 요소로 나누어 첫째, 인간은 내적 동일감과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서 자신을 지각해야만 하며 둘째, 나의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다른

21) Nathaniel Hawthorne(1851), The Great Stone Face.

22) H.W.Maier(1969),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Contributions of E.H.Erikson, J.Piaget and R.R.Sears and Their Applications. New York. : Harper & Row, pp.53-69.

23) 박아청(1984), 전제서, pp.75-76.

24) J.Block(1961), "Ego Identity, Role Variabi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5, No. 5, pp.392-397.

사람이 나에게서 같은 동일성과 일관성을 지각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일관성의 외적·내적 선상에서 일치되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하고 청소년기의 자아인식은 인간 상호간의 경험에서 얻은 피이드 백에 의해서 타당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Marcia²⁵⁾는 자아정체감 발달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정체감 성취형은 위기를 경험하고 일정한 직업과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의사로 선택한 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형이다. 의사결정이나 선택이 부모의 희망과 같다 해도 신중한 검토와 고민의 과정을 거쳐 해결에 이른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에 자신감을 갖고 환경의 급변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간다.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정체감 유예형은 현재 위기 경험 중에서 의사결정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정한 결정이 없기에 관여의 정도는 애매하고 초점이 없다. 그러나 자기선택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정체감 혼미와는 구별된다.

셋째, 정체감 폐쇄형은 어떤 의사결정의 위기경험이 없으면서 특정한 직업과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상태이다. 자기와 부모의 목표간에 불협화가 없고 모든 경험이 유아기 이후의 자기신념을 보강하도록 되었다. 경직성이 특징이며 적극적 관여와 허세의 태도로 인해 성취형과 같이 보이지만 부모의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즉시 당황하고 혼미에 빠진다.

넷째, 정체감 혼미형은 위기의 경험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

- (1) 위기 전 혼미형은 지금까지 자기가 진실로 어떤 인간이었던가의 검토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곤란한 경우이다. 부모의 방임적 교육 태도 즉 성장과정에서 본보기가 없고 자녀와 부모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모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이다.
- (2) 위기 후의 혼미형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될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상태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대로 내맡기는 형이다.

25) J.E.Marcia(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ed.), Hand 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김영옥(199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p.14-15에서 재인용.

<표 1> 자아정체감의 지위구분

		관 여	
		무	유
위 기	무	혼 미	폐 쇄
	유	유 예	성 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시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분명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3.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1) 가정생활

적응이란 개인의 필요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요청이 모두 충족되고 있거나 개인이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또는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욕구충족이 환경과 갈등 관계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²⁶⁾ 개인이 적응해야 할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눌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적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김형태²⁷⁾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가정의 물리적 조건이나 부모의 지위보다도 자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응집력, 가족상호간 인간관계의 질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26) 배영사, 서울대학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3), 「교육학 용어사전」, p.461.

27)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92.

서동인²⁸⁾의 연구에서는 한 두 자녀로 적은 수의 자녀를 두는 현대가족은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지나치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조부모와 손 자녀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는 가족원들의 응집성을 강화시키고, 가족역사의 계승을 용이하게 하며 가족에의 소속감을 굳게 해주어 가족원들의 정체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문화²⁹⁾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와의 응집도, 조모-부모관계, 모와의 응집도 순인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족에 있어서의 아버지와의 관계 및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핵가족에 있어서는 모와의 응집도와 조모와의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용문³⁰⁾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편부모가족)학생은 정상가정(부부가족)학생에 비해 사회생활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가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자녀들의 내적 자아 준거체제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은 가족관계가 거부적이며 친애가 결손 되어 있어 자녀의 성격적 자아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분위기가 폐쇄적이며 자녀의 사회적 자아도 상대적으로 덜 성숙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순규³¹⁾, 홍성애³²⁾ 역시 정상가정의 청소년이 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다.

장인기³³⁾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조사에

- 28) 서동인(1991), “손 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2.
- 29)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64-65.
- 30)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p.20-25.
- 31) 이순규(1987), “정상과 결손가정의 가정환경의 심리적 과정변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51.
- 32)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상호작용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61.
- 33) 장인기(1983),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p.30-33.

서 그 결과 가정환경의 과정변인인 성취, 개방, 친애, 자율변인이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양임³⁴⁾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점수는 종교에 따라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김선자³⁵⁾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녀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신앙이나 학생 자신의 신앙이 도덕성 발달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반해 고등학생의 경우 의미 있는 상관관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직업, 학력, 소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체감 형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강미애³⁶⁾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전체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김희경³⁷⁾의 연구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자녀와 함께 지내는 기회가 많으며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Margaret³⁸⁾은 부모-자녀 관계는 자기 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부모, 따뜻함과 사랑이 있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서 자기 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모친이 취업하고 있는

34) 최양임(1994), “가정환경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간에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63.

35) 김선자(1993),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47.

36) 강미애(1991), “농어촌 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41.

37)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66-68.

38) A.L.Margaret(1985), *op.cit.*, p.131, p.162-169.

청소년은 하루 종일 모친의 돌봄을 받는 청소년들보다도 더 높은 자기 존중감, 더 높은 인격성, 사회적 적응력, 더 나은 가족관계, 학교에서 더 나은 상호적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들의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일에 긍정적이면 자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자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중녀³⁹⁾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월 총수입 등은 인문계 여고생이 실업계 여고생보다 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계전⁴⁰⁾과 박은아⁴¹⁾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 점수는 유의한 상관을 보여 고소득 가정일수록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유명환⁴²⁾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변인에 있어 산업체 여고생 집단이 정규 여고생 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전광수⁴³⁾와 박완성⁴⁴⁾의 연구에서는 총자아정체감 점수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변인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2) 학교생활



청소년의 경우 하루의 일과는 거의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생활은 바로 청소년기의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가정이 지닌 교육기능의

-
- 39) 김중녀(1992), “심리적 학교환경과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31-32.
 40) 심계전(1985), 전계논문, p.50.
 41) 박은아(1993), “가족구조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용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35-37.
 42)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57.
 43) 전광수(1987), “자기 일관성과 생활변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44.
 44) 박완성(1990), “고교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33.

약화로 인하여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인지적 성장발달을 통한 정서적 대처능력배양, 진로탐색, 교사 및 교우와의 인격적 대인관계형성 등 모든 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며 기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⁴⁵⁾

박미연⁴⁶⁾의 연구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친애성, 자율성, 개방성, 성취성이 높을수록 학업관계 학교생활 적응,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 학교환경 및 학교행정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환경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반응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69.9%보다 여학생이 8.5%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보다 인문계가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형태⁴⁷⁾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히 교과학습과 수업시간에 관계된 ‘학과 활동의 흥미와 태도’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중에서도 ‘학과활동의 흥미와 태도’, ‘학습습관’의 영역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주로 학습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 중에서도 특히, ‘친구 상호 간의 적응’이 다른 요인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시절에는 교우관계를 통해 개인의 내적 안정성, 소속감을 얻는다고 했다.

강미애⁴⁸⁾는 교우관계와 학업성취도가 전체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위 요인에서는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독특성」, 「자기수용」, 「사회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인숙⁴⁹⁾과 조원영⁵⁰⁾, 박은아⁵¹⁾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학업에 우월감

45)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전게서, pp.172-173.

46) 박미연(1992), 전계논문, pp.39-41.

47) 김형태(1989), 전계논문, pp.96-100.

48) 강미애(1991), 전계논문, p.41.

49) 김인숙(1988), “학업우수아와 학업부진아의 정서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49.

50) 조원영(1990), “가정환경이 학업성취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65.

51) 박은아(1993), 전계논문, pp.42-45.

과 자신감을 지니며 「자기수용」, 「미래계획」도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적응보다는 학교생활 적응이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 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교우집단을 통해서 유희성이 충족되고 정보를 확인하며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사회화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연우⁵²⁾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 급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학업 성공집단은 실패집단보다 학문적 자아개념의 평균이 높았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일수록 학업성공 집단이 많다고 하였다.

Rutter⁵³⁾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학교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의 지적 능력이나 가정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생활의 경험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의 경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학생과 교사와의 인간관계이며,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안경혜⁵⁴⁾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정력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며 일을 좋아하여 일에 대한 성취도가 많은 활동적인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녀⁵⁵⁾는 인문계 고교생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실업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만을 강조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반면, 실업계는 입시부담이 없고 취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특별교육의 육성으로 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52) 이연우(1988),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취간의 상호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pp.36-37.

53) Rutter(1985), Studies of Psychological risk : 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 edited by Michael Rutt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중녀(1992), 전계논문, p.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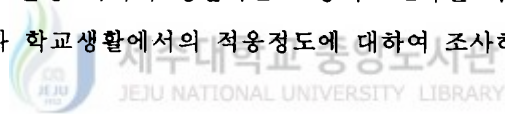
54) 안경혜(1987), “고교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적 및 성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25.

55) 김중녀(1992), 전계논문, pp.40-41.

공의표⁵⁶⁾는 학교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선생님과 상담한 일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남자는 53.3%, 여자는 59.9%로 나타났으며 상담한 내용에서 진로문제가 평균 36.3%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학습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급문제, 이성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결과에서 의견을 들어보아 만족한 해답을 얻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은 남녀 60%을 훨씬 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첫째 가정의 물리적 조건보다는 가족간의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 즉 가족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와 심리적 분위기, 가족구조, 부모와의 응집성,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환경에서 학업성적의 성공적인 성취경험과 친구들과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교육 현실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셋째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올바른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환경 내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6) 공의표(1986),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및 학교관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34.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조사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집학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10개 학교 중 인문계 400명 실업계 4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실업계의 경우 상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예비조사 후 몇 개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면서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문항, 가정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문항 내용과 문항 수는 <부록>과 같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으로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Cronbach's α)값으로 나타내었다.

1) 가정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정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는 이재창⁵⁷⁾, 유명환⁵⁸⁾, 조원영⁵⁹⁾,

57) 한국교육개발원(1981),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 12월, p.35.

최양임⁶⁰⁾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한 부모의 연령과 학력, 가계소득, 직업과 가족유형, 종교와 학생의 출생순위, 고민하는 문제와 의논대상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정생활 적응

가정생활 적응 척도는 송인섭⁶¹⁾의 측정도구 중에서 가정생활에 관한 문항인 자아개념 중 가족 자아개념의 문항들을 이용한 박은아⁶²⁾, 김영옥⁶³⁾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가족 자아개념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을 의미한다.

모두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91 이다.

3)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김형태⁶⁴⁾, 박은아⁶⁵⁾, 김중녀⁶⁶⁾, 박미연⁶⁷⁾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문항은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지각과 교우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58) 유명환(1989), 전계논문, pp.75-77.

59) 조원영(1990), 전계논문, pp.81-82.

60) 최양임(1994), 전계논문, pp.78-79.

61) 송인섭(1982), “가정환경의 지위변인과 작용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p.73-90.

62) 박은아(1993), 전계논문, p.64.

63) 김영옥(199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과 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64.

64) 김형태(1989), 전계논문, pp.150-151.

65) 박은아(1993), 전계논문, pp.65-66.

66) 김중녀(1992), 전계논문, p.71.

67) 박미연(1992), 전계논문, pp.52-56.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 이다.

4)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의 측정도구는 1987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최정훈 외 2명이 우리나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한 도구를 박승윤⁶⁸⁾, 박은아⁶⁹⁾가 이용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총자아정체감은 7개 하위요인으로 각 요인별 문항은 6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반응편파를 줄이기 위해 42문항 가운데 22문항은 부정적 진술로 구성되었고, 20문항은 긍정적 진술로 구성되었는데 부정적 진술의 응답은 긍정적 진술과는 반대로 채점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 이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2>과 같다.

3. 자료수집

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적합여부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1997년 5월 17일 ~ 24일 사이에 인문계, 실업계(남·여 각 4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표집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구의 취지와 실시 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가 직접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토록 하였다. 800부를 배부하여 782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약 98%) 그 중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기재된 21부를 제외하고 총 761부를 실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학교와 분석에 사용된 실제 응답자 수는 <표 3>과 같다.

68) 박승윤(1989),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p.44-48.

69) 박은아(1993), 전계논문, pp.67-69.

<표 2>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문항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내 용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가 치	주위환경을 판단하는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개인적 준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15, 30, 31, 35, 38, 39	6	.71
사 회 적 적 용 력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11, 18, 22, 25, 26, 33	6	.57
독 특 성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으로부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별된 한 사람으로 지각하는가를 측정한다.	1, 3, 20, 28, 41, 42	6	.70
자기수용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특성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측정한다	9, 12, 16, 23, 32, 37	6	.66
미래계획	장래의 직업, 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2, 8, 10, 17, 36, 40	6	.70
사 회 성	다른 사람과 다양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측정한다.	4, 13, 14, 21, 24, 34	6	.57
자 율 성 /자 율 감	개인적인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가를 측정한다.	5, 6, 7, 19, 27, 29	6	.71
총자아정체감			42	.90

<표 3> 표집학교 및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

	남	여
표집학교 (인원수)	제주일고(100명), 오현고(100명), 제주상고(100명), 제주농고(50명), 제주공고(50명)	중앙여고(100명), 제주여고(100명), 제주여상(100명), 제주농고(50명), 제주공고(50명)
응답자수	375	386
계	761	

4.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정체감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써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정체감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χ^2 -test(Chi-Square)를 실시하였다.

넷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크론바하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문제들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9.3% 여학생이 50.7%였으며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가족이 89.6%, 결손가족(이혼, 부 또는 모사망, 부모사망)은 10.2%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는 맏이가 35.2%, 중간 32.6%, 막내 28.9%, 독자는 3.3%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의 유·무에 대하여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이 53.6%로 절반이 넘고 있으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46.4%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은 45세 이하 39.0%, 46~50세가 35.5%, 51세 이상이 25.5%이며 모의 연령은 45세 이하가 62.5%, 46~50세 27.5%, 51세 이상이 10.0%였다.

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47.3%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이상이 23.2%, 중졸 19.4%, 국졸 이하 1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7.8%, 중졸 35.0%, 국졸이하 21.3%, 전문대졸 이상은 6.0%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은 생산·단순노무직이 25.0%로 가장 많았고 행정·관리·사무직 24.1%, 농·어업 17.1%, 판매직 11.2%, 서비스직 10.7%, 전문·기술직은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직 19.7%, 농·어업 17.4%, 판매직 15.0%, 전문·기술직 5.2%, 행정·관리·사무직 4.1%, 생산·단순노무직 3.6%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51~250만원으로 40.7%였으며 251만원 이상인 경우는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는 대상으로는 친구·선배가 4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 9.2%, 형제·자매 8.8%, 교사 0.7%순이며 좀처럼 의논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32.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성별	남	375 (49.3)	가족 유형	동거가족	683 (89.8)
	여	386 (50.7)		결손가족	78 (10.2)
계		761(100)	계		761(100)
출생 순위	만 이	268 (35.2)	상담대상	친구·선배	373 (49.0)
	중 간	248 (32.6)		부모	70 (9.2)
	막 내	220 (28.9)		형제·자매	67 (8.8)
	독 자	25 (3.3)		교사	5 (0.7)
	계	761(100)		종처럼 의논 안함	246 (32.3)
계		761(100)	계		761(100)
부의 연령	45세 이하	297 (39.0)	모의 연령	45세 이하	476 (62.5)
	46~50세	270 (35.5)		46~50세	209 (27.5)
	51세 이상	194 (25.5)		51세 이상	76 (10.0)
계		761(100)	계		761(100)
부의 학력	국졸 이하	75 (10.1)	모의 학력	국졸 이하	160 (21.3)
	중졸	145 (19.4)		중졸	263 (35.0)
	고졸	353 (47.3)		고졸	284 (37.8)
	전문대졸 이상	173 (23.2)		전문대졸 이상	45 (6.0)
계		746(100)	계		752(100)
부의 직업	전문·기술직	70 (9.6)	모의 직업	전문·기술직	39 (5.2)
	판매직	82 (11.2)		판매직	113 (15.0)
	생산·단순노무직	183 (25.0)		생산·단순노무직	27 (3.6)
	행정·관리·사무직	176 (24.1)		행정·관리·사무직	31 (4.1)
	서비스직	78 (10.7)		서비스직	148 (19.7)
	농·어업	125 (17.1)		농·어업	131 (17.4)
	무직	17 (2.3)		주 부	262 (34.9)
계		731(100)	계		751(100)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71 (48.8)	고민 내용	건강·용모·체격	106 (13.9)
	151~250만원	309 (40.7)		학업성적·진학	457 (60.1)
	251만원 이상	80 (10.5)		이성·친구관계	96 (12.6)
계	760(100)	성격		43 (5.7)	
학생의 종교	유	408 (53.6)		가정문제	59 (7.8)
	무	353 (46.4)		계	761(100)
계		761(100)	계		761(100)

김중녀⁷⁰⁾의 연구에서는 고민이 생겼을 때 의논하는 대상은 친구가 61.9%로 가장 높았고 부모 8.5%, 형제 7.3%, 교사 0%, 좀처럼 의논하지 않는다 가 22.3%로서 이 결과와 비슷하며 친구·선배와의 의논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청소년기가 부모나 형제, 교사보다 비슷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대상으로 교사가 낮게 나타난 것은 많은 학생들의 눈에 비친 교사들은 세대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비율이 낮은 것 같다.

좀처럼 의논을 하지 않는 학생이 32.3%로 높게 나타나,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의논하고 싶은 대상이 없어서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부모와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 고민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진학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외 건강·용모·체격 13.9%, 이성·친구관계 12.6%, 가정문제 7.8%, 성격 5.7%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인 MBC 청소년백서⁷¹⁾조사에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는 공부 55.2%, 진학 41.1%, 친구문제 16.5%, 성격 12.2%, 외모 11.5%, 가족문제 7.0%인 것으로 보아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며 스트레스는 학업성적과 진학이라고 볼 수 있다.



70) 김중녀(1992), 전제논문, p.24.

71) 문화방송(1991), “인생관”, 「91 MBC 청소년 백서」, 삼보문화사, p.128.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1)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M	SD	t	M	SD	t
성 별	남	4.06	.89	.04	3.79	.79	2.06*
	여	4.05	.91		3.68	.77	
가 족 유 형	동거 가족	4.11	.89	4.96***	3.75	.78	1.54
	결혼 가족	3.59	.83		3.61	.78	
종 교	유	4.08	.91	.93	3.71	.80	-0.79
	무	4.02	.88		3.76	.76	
상 담 여 부	한다	4.13	.88	3.20**	3.82	.77	4.47***
	안한다	3.91	.90		3.55	.78	

* p<.05 ** p<.01 *** p<.001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을 이혼 또는 부나 모 어느 한쪽 혹은 부모가 없는 가족을 '결혼가족'으로 정하고 나머지 가정을 '동거가족'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거가족의 청소년들이 결혼가족에 비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생

활에 대한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생활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p < .01$ 수준에서, 좀처럼 상담을 하지 않는 집단은 $p < .001$ 수준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M	F	D	M	F	D
출 생 순 위	만 이	4.12			3.84		
	중 간	4.04			3.68		
	막 내	4.02	.79		3.68	2.28	
	독 자	3.92			3.64		
상 담 대 상	친구·선배	4.01			3.80		
	부모	4.68	18.64***	b	3.97	1.50	
	형제·자매	4.24		b	3.79		

1) *** $p < .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출생순위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써 출생순위는 적응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았다.

상담대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에서 $p < .001$ 수준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친구·형제·자매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에서 더 적응을 잘하고 있으나 학교생활의 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상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담대상으로 교사집단을 제외한 이유는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전체의 0.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가계소득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의 학력은 가정생활 적응에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고졸,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청소년들이 국졸 이하 집단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에 좀 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청소년들이 국졸, 중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에 좀 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에 따른 가정생활 적응은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보면 판매·서비스직 집단과 농·어업 집단이 무직 집단보다 가정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은 $p < .05$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무직집단이 전체의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가정생활 적응이 $p < .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생산·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M	F	D	M	F	D	
부의 연령	45세 이하	4.05	.02		3.73	.03		
	46~50세	4.06			3.74			
	51세 이상	4.06			3.74			
모의 연령	45세 이하	4.07	.26		3.74	.94		
	45~50세	4.02			3.76			
	51세 이상	4.07			3.62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85	3.00*		3.58	2.18		
	중졸	3.96			b			3.67
	고졸	4.10			ab			3.76
	전문대졸 이상	4.16			a			3.82
모의 학력	국졸 이하	3.98	.91		3.61	3.40*	b	
	중졸	4.04			b			3.72
	고졸	4.11			ab			3.78
	전문대졸 이상	4.17			a			3.98
부의 직업	전문·행정직	4.09	2.80*		3.85	2.90*	a	
	판매·서비스직	4.12			a			3.76
	생산·단순노무직	3.91			ab			3.61
	농·어업	4.21			a			3.75
	무직	3.76			b			3.57
모의 직업	전문·행정직	4.13	3.71**		3.81	.69		
	판매·서비스직	4.05			a			3.69
	생산·단순노무직	3.53			b			3.60
	농·어업	4.22			a			3.77
	주부	4.03			a			3.75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94	6.78***		3.61	9.21***	b	
	151~250만원	4.14			a			3.84
	251만원 이상	4.26			a			3.90

1) * p<.05 ** p<.01 ***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계소득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51만원 이상 소득 집단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1)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성별, 가족유형, 종교의 유·무, 상담 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별	남	3.54	.72	.72	3.23	.60	1.56	4.08	.90	-0.11	3.36	.93	1.95*
	여	3.50	.75		3.16	.62		4.09	.88		3.23	.95	
가족 유형	동거가족	3.54	.73	2.32*	3.21	.60	2.42*	4.11	.88	2.41*	3.31	.94	1.60
	결손가족	3.33	.74		3.04	.65		3.85	.97		3.13	.95	
종교	유	3.52	.75	.26	3.17	.60	-1.42	4.08	.91	-0.03	3.32	.95	.92
	무	3.51	.73		3.23	.62		4.08	.87		3.26	.93	
상담 여부	한다	3.60	.72	4.52***	3.21	.59	.59	4.18	.84	4.16***	3.38	.95	3.54***
	안한다	3.34	.74		3.18	.65		3.89	.95		3.12	.92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별	남	3.67	1.25	1.72	3.61	1.21	-0.64	3.67	.86	-1.48	3.43	1.18	.75
	여	3.52	1.25		3.67	1.23		3.46	.85		3.36	1.24	
가족 유형	동거가족	3.63	1.26	2.40*	3.66	1.23	1.48	3.42	.86	.65	3.41	1.21	1.22
	결손가족	3.27	1.14		3.44	1.18		3.35	.84		3.24	1.21	
종교	유	3.58	1.27	-0.39	3.68	1.20	1.09	3.45	.85	1.19	3.38	1.23	-0.40
	무	3.61	1.23		3.59	1.24		3.37	.86		3.41	1.19	
상담 여부	한다	3.70	1.23	3.48***	3.71	1.24	2.43*	3.55	.81	6.53***	3.47	1.21	2.48**
	안한다	3.37	1.26		3.48	1.18		3.13	.87		3.24	1.19	

* p<.05 ** p<.01 *** p<.001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자아정체감」은 남녀의 차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정체감의 7개 하위요인 가운데 「독특성」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p < .05$ 수준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양임⁷²⁾의 연구결과인 「자기수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봉숙⁷³⁾의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하위요인별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조원영⁷⁴⁾, 홍성애⁷⁵⁾, 김영희⁷⁶⁾, 송희옥⁷⁷⁾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연구를 계속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는 「총자아정체감」과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모와의 동거가족이 결손가족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순규⁷⁸⁾, 홍성애⁷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는 어느 요인에서도 자아정체감 형성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김영희⁸⁰⁾, 송희옥⁸¹⁾, 최양임⁸²⁾, 정문희⁸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생의 종교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 여부에 따라서는 「총자아정체감」과 하위요인 중 「사회적

72) 최양임(1994), 전계논문, P.43.

73)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60.

74) 조원영(1990), 전계논문, p.63.

75) 홍성애(1988), 전계논문, p.87.

76) 김영희(1989), “중·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32-33.

77) 송희옥(199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p.32.

78) 이순규(1987), 전계논문, p.51.

79) 홍성애(1988), 전계논문, p.61.

80) 김영희(1989), 전계논문, p.36.

81) 송희옥(1993), 전계논문, p.39.

82) 최양임(1994), 전계논문, p.58.

83) 정문희(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p.33.

적용력», 「독특성», 「자기수용», 「사회성」은 $p < .001$ 수준에서, 「자율성」은 $p < .01$ 수준에서, 「미래계획」은 $p < .05$ 수준에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가치」요인은 자아정체감의 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담을 좀처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출생순위와 상담 대상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용력			독 특 성		
		M	F	D	M	F	D	M	F	D	M	F	D
출생 순위	말 이 중 간 막 내 독 자	3.59	1.88		3.21	.64		4.15	2.33		3.32	2.13	
		3.44			3.16			3.98			3.21		
		3.50			3.21			4.09			3.32		
		3.61			3.29			4.33			3.68		
상담 대상	친구·선배 부모 형제·자매	3.57	1.95		3.18	2.47		4.16	.49		3.33	1.63	
		3.76			3.35			4.26			3.51		
		3.59			3.21			4.21			3.49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F	D	M	F	D	M	F	D	M	F	D
출생 순위	말 이 중 간 막 내 독 자	3.71	1.33		3.78	1.81		3.49	1.43		3.48	.98	
		3.51			3.56			3.40			3.29		
		3.57			3.56			3.33			3.40		
		3.43			3.64			3.49			3.41		
상담 대상	친구·선배 부모 형제·자매	3.61	5.43**	b a ab	3.68	.99		3.60	3.35*	a ab b	3.46	2.13	
		4.12			3.90			3.46			3.71		
		3.81			3.77			3.35			3.29		

1) * $p < .05$ ** $p < .01$ *** $p < .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김영희⁸⁴⁾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중 「가치」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송희옥⁸⁵⁾의 연구에서는 독자인 청소년들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이 더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하고자 했을 때 상담대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면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은 $p<.01$ 수준에서 부모와 상담하는 집단이 친구·선배와 상담을 하는 집단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성」은 $p<.05$ 수준에서 친구·선배와 상담 하는 집단이 형제·자매와 상담하는 집단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기자신을 수용하게 되며 친구나 선배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을 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과 나누는 것으로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Erikson의 이론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10-1>과 같다.

부모의 연령은 「총자아정체감」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의 학력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은 $p<.001$ 수준에서, 「미래계획」은 $p<.01$ 수준에서, 「자기수용」, 「자율성」은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사회성」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4) 김영희(1989), 전계논문, p.34.

85) 송희옥(1993), 전계논문, p.34.

<표 10-1> 부모의 연령,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연령	45세 이하	3.53			3.18			4.10			3.29		
	45~50세	3.54	.79		3.24	1.04		4.11	.61		3.30	.03	
	51세 이상	3.46			3.17			4.02			3.29		
모의 연령	45세 이하	3.55			3.21			4.12			3.31		
	46~50세	3.48	1.77		3.21	1.94		4.02	1.00		3.27	.13	
	51세 이상	3.39			3.07			4.05			3.30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26		b	3.03		c	3.64		c	3.04		c
	중졸	3.39	7.57***	b	3.09	5.26***	bc	3.99	9.89***	b	3.02	11.79***	c
	고졸	3.57		a	3.23		ab	4.14		ab	3.34		b
	전문대졸 이상	3.66		a	3.30		a	4.26		a	3.57		a
모의 학력	국졸 이하	3.29		c	3.08		b	3.76		b	3.05		c
	중졸	3.52	8.14***	b	3.16	4.89**	ab	4.12	10.88***	a	3.23	10.41***	bc
	고졸	3.61		ab	3.26		a	4.22		a	3.45		b
	전문대졸 이상	3.74		a	3.30		a	4.30		a	3.74		a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연령	45세 이하	3.59			3.65			3.47			3.43		
	45~50세	3.67	1.25		3.69	.74		3.36	1.24		3.42	0.80	
	51세 이상	3.49			3.55			3.41			3.30		
모의 연령	45세 이하	3.65			3.70			3.43			3.43		
	46~50세	3.55	2.42		3.53	1.76		3.41	.88		3.38	1.06	
	51세 이상	3.32			3.52			3.29			3.21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31		b	3.42		b	3.24			3.13		c
	중졸	3.43	3.31*	ab	3.48	3.99**	b	3.45	1.84		3.24	3.20*	bc
	고졸	3.69		a	3.65		ab	3.48			3.43		ab
	전문대졸 이상	3.70		a	3.89		a	3.37			3.56		a
모의 학력	국졸 이하	3.38			3.33		b	3.33			3.12		b
	중졸	3.60	2.36		3.69	5.12**	a	3.47	.98		3.38	4.80**	ab
	고졸	3.67			3.75		a	3.39			3.52		a
	전문대졸 이상	3.81			3.90		a	3.46			3.70		a

1) * p<.05 ** p<.01 ***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모의 학력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은 $p < .001$ 수준에서, 「가치」, 「미래계획」, 「자율성」은 $p < .01$ 수준에서 고졸,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청소년들이 국졸, 중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양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인 「사회성」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학력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의 직업과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10-2>와 같다.

부의 직업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총자아정체감」과 하위요인 중 「가치」, 「독특성」은 $p < .01$ 수준에서, 「사회적 적응력」은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무직집단이 전문·행정직, 판매·서비스직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 「미래계획」, 「사회성」, 「자율성」에서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의 직업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써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 차이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포함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 「자기수용」, 「자율성」은 $p < .001$ 수준에서, 「사회성」은 $p < .01$ 수준에서, 「미래계획」은 $p < .05$ 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251만원 이상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써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명환⁸⁶⁾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교육정도, 직업, 수입, 주택유형)은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단지 부모의 가계소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의 일부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박은아⁸⁷⁾의 연구에서는 161만

86) 유명환(1989), 전계논문, pp.47-48.

87) 박은아(1993), 전계논문, p.37.

원 이상 고소득 가정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10-2> 부모의 직업,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직업	전문·행정직	3.63		a	3.28		a	4.24		a	3.46		a
	판매·서비스직	3.55		ab	3.27		a	4.12		a	3.33		a
	생산·단순노무직	3.43	3.15**	ab	3.07	3.91**	a	4.00	5.46***	a	3.17	4.02**	ab
	농·어업	3.43		ab	3.13		a	3.95		a	3.16		ab
	무직	3.27		b	3.16		a	3.45		b	2.94		b
모의 직업	전문·행정직	3.62			3.27			4.17			3.35		
	판매·서비스직	3.52			3.21			4.12			3.32		
	생산·단순노무직	3.43	.44		3.17	.45		4.04	.47		3.19	.51	
	농·어업	3.50			3.16			4.02			3.21		
	주부	3.52			3.20			4.08			3.33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38		c	3.11		c	3.93		b	3.11		c
	151~250만원	3.59	16.99***	b	3.25	11.08***	b	4.19	11.41***	a	3.40	20.61***	b
	251만원 이상	3.86		a	3.43		a	4.35		a	3.77		a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직업	전문·행정직	3.67			3.81			3.43			3.54		
	판매·서비스직	3.62			3.64			3.46			3.44		
	생산·단순노무직	3.50	.65		3.56	2.10		3.42	.24		3.32	1.88	
	농·어업	3.67			3.47			3.38			3.22		
	무직	3.45			3.40			3.31			3.19		
모의 직업	전문·행정직	3.76			3.69			3.50			3.57		
	판매·서비스직	3.58			3.65			3.40			3.33		
	생산·단순노무직	3.49	.54		3.31	.54		3.33	.28		3.48	.71	
	농·어업	3.65			3.68			3.43			3.33		
	주부	3.55			3.65			3.41			3.44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48		b	3.54		b	3.32		b	3.19		c
	151~250만원	3.61	7.23***	b	3.70	2.96*	ab	3.46	6.07**	b	3.52	13.93***	b
	251만원 이상	4.06		a	3.85		a	3.66		a	3.88		a

1) * p<.05 ** p<.01 ***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값을 각각 4분편차에 의해 상·중·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들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생활 적응에서의 집단간 차이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 「미래계획」은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과 낮은 수준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중간 수준 집단의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하위요인 중 「가치」, 「독특성」, 「사회성」, 「자율성」에서는 상·중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그리고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변 인	집 단	M	F	D	M	F	D
총자아정체감	상 (195)	4.36	45.62***	a	4.31	167.35***	a
	중 (378)	4.14		b	3.76		b
	하 (188)	3.57		c	3.09		c
가치	상 (265)	4.21	12.43***	a	3.97	26.68***	a
	중 (336)	4.06		a	3.70		b
	하 (160)	3.77		b	3.42		c
사회적적응력	상 (194)	4.38	46.48***	a	4.20	117.96***	a
	중 (387)	4.12		b	3.78		b
	하 (180)	3.56		c	3.13		c
독특성	상 (206)	4.19	7.89***	a	4.04	45.97***	a
	중 (373)	4.09		a	3.77		b
	하 (182)	3.84		b	3.32		c
자기수용	상 (203)	4.51	61.55***	a	4.27	160.15***	a
	중 (373)	4.05		b	3.77		b
	하 (185)	3.57		c	3.08		c
미래계획	상 (191)	4.31	17.86***	a	4.18	63.79***	a
	중 (397)	4.06		b	3.70		b
	하 (173)	3.76		c	3.33		c
사회성	상 (219)	4.21	16.81***	a	4.10	79.79***	a
	중 (360)	4.12		a	3.78		b
	하 (182)	3.73		b	3.21		c
자율성	상 (215)	4.23	11.10***	a	4.23	99.41***	a
	중 (362)	4.07		a	3.68		b
	하 (184)	3.81		b	3.26		c

1) ***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수준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정체감 점수를 평균 내어 평균보다 높으면 상집단, 평균보다 낮으면 하집단으로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의 관계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df=1,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총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chi^2=14.77$)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51.4%,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4.9%,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9.7%,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14.1%로 나타났다.

「총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chi^2=24.64$)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8.7%,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6.3%,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0.2%,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집단은 약 44.8%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가치」요인이 높은 집단($\chi^2=34.69$)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44.9%,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7.1%,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5.4%,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22.6%로 나타났다.

<표 12>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

		가정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계	χ^2 (df=1)
			H(%)	L(%)		
총자아 정체감	H	H L	190 (51.35) 73 (19.73)	55 (14.86) 52 (14.05)	245 125	14.77***
	L	H L	73 (18.67) 40 (10.23)	103 (26.34) 175 (44.76)	176 215	24.64***
가치	H	H L	155 (44.93) 53 (15.36)	59 (17.10) 78 (22.61)	214 131	34.69***
	L	H L	108 (25.96) 60 (14.42)	99 (23.80) 149 (35.82)	207 209	23.79***
사회적 적용력	H	H L	190 (48.35) 70 (17.81)	73 (18.58) 60 (15.27)	263 130	13.15***
	L	H L	73 (19.84) 43 (11.68)	85 (22.10) 167 (45.38)	158 210	27.65***
독특성	H	H L	154 (43.63) 65 (18.41)	59 (16.71) 75 (21.25)	213 140	24.01***
	L	H L	109 (26.72) 48 (11.76)	99 (24.26) 152 (37.25)	208 200	34.75***
자기수용	H	H L	195 (54.17) 59 (16.39)	61 (16.94) 45 (12.50)	256 104	13.46***
	L	H L	68 (16.96) 54 (13.47)	97 (24.19) 182 (45.39)	165 236	15.42***
미래계획	H	H L	169 (46.94) 65 (18.06)	59 (16.39) 67 (18.61)	228 132	22.75***
	L	H L	94 (23.44) 48 (11.97)	99 (24.69) 160 (36.90)	193 208	28.75***
사회성	H	H L	177 (46.34) 69 (18.06)	62 (16.23) 74 (19.37)	239 143	25.99***
	L	H L	86 (22.69) 44 (11.61)	96 (25.33) 153 (40.37)	182 197	26.07***
자율성	H	H L	161 (47.21) 67 (19.65)	46 (13.49) 67 (19.65)	207 134	28.33***
	L	H L	102 (24.29) 46 (10.95)	112 (26.67) 160 (38.10)	214 206	29.52***

*** p<.001

「가치」요인이 낮은 집단($\chi^2=23.79$)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26.0%,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3.8%,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4.4%,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35.8%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력」요인이 높은 집단($\chi^2=13.15$)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48.4%,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8.6%,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7.8%,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15.3%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력」요인이 낮은 집단($\chi^2=27.65$)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9.8%,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2.1%,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1.7%,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45.4%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독특성」요인이 높은 집단($\chi^2=24.01$)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43.6%,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6.7%,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8.4%,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21.3%로 나타났다.

「독특성」요인이 낮은 집단($\chi^2=34.75$)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26.7%,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4.3%,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1.8%,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37.3%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요인이 높은 집단($\chi^2=13.46$)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54.2%,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

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6.9%,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6.4%,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12.5%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요인이 낮은 집단($\chi^2=15.42$)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7.0%,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4.2%,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3.5%,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45.4%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미래계획」요인이 높은 집단($\chi^2=22.75$)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46.9%,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6.4%,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8.1%,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18.6%로 나타났다.

「미래계획」요인이 낮은 집단($\chi^2=28.75$)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23.4%,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4.7%,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2.0%,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36.9%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요인이 높은 집단($\chi^2=25.99$)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46.3%,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6.2%,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8.1%,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19.4%로 나타났다.

「사회성」요인이 낮은 집단($\chi^2=26.07$)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22.7%,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잘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5.3%,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1.6%,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40.1%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요인이 높은 집단($\chi^2=28.33$)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47.2%,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좋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13.5%,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9.7%,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19.7%로 나타났다.

「자율성」요인이 낮은 집단($\chi^2=29.52$)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24.3%,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좋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적응이 낮은 집단이 약 26.7%,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은 낮지만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은 약 11.0%,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낮은 집단은 약 38.1%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자아정체감의 수준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모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출생순위,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동거가족의 청소년이 결손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대상으로는 부모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친구·선배, 형제·자매들과 상담하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수준 차이에서 보면 종교 유·무, 출생순위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독특성」에서, 가족유형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였다. 상담여부에 따라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대상으로는 부모를 선택한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기수용」에서, 친구·선배를 선택한 집단의 청소년들은 「사회성」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에서 부모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의 학력은 가정생활 적응에서, 모의 학력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부모가 고졸 이상 학력일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의 직업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의 직

업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은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으면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았다. 부의 직업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였으나 모의 직업은 자아정체감에 따른 수준차이가 없었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정체감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지만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손가족,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 그리고 상담을 하지 않는 집단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고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하여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동일시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들 중에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면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부모-자녀관계, 가족구조, 부모와의 응집도와 학교 생활에서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교우관계, 학업 성취도,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도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참 고 문 헌

- 김성태(1981), 「발달심리학」, 법문사.
- 문화방송(1991), 「91 MBC청소년백서」, 삼보문화사.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중앙적성출판사.
- 배영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소(1993), 「교육학 용어사전」.
- 이춘재 외(1995),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심리학」, 양서원.
-
- 강미애(1991), “농어촌 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공의표(1986),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및 학교관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1989),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선자(1993), “기독교학생과 비기독교학생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옥(199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중(1983),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영희(1989), “중·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1988), “학업우수아와 학업부진아의 정의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중녀(1992), “심리적 학교환경과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필식(1985),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미연(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아(1993), “가족구조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완성(1990), “고교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윤(1989),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밀도”,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송인섭(1982), “가정환경의 지위변인과 작용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송희옥(199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심계전(1985),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경혜(1987), “고교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성격 및 성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순규(1987), “정상과 결손가정의 가정환경의 심리적 과정변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우(1988),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취 간의 상호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인기(1983),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전광수(1987), “자기 일관성과 생활변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문희(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조미란(1989),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원영(1990), “가정환경이 학업성취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석연(1977),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양임(1994), “가정환경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간에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1981),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 12월.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상호작용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Erikson,E.H.(1963),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윤진·김인경 역 (1988), 중앙적성출판사.
- Block,J.(1961), “Ego Identity, Role Variability and Adjustment” ,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5, No. 5.
- Dignan,S.M.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igy, 1(5).
- Erikson,E.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 Co.
- Havighurst,R.T.(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akay.
- Maier,H.W.(1969),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Contributions of E.H. Erikson, J.Piaget and R.R.Sears and Their Applications. N,Y. : Harper & Row.
- Margaret,A.L.(1985), Adolescenc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 McAllister,R.T.(1970), The Adolescent and the Problums in Adolescent Psychology, Berkley : Mrcutohan Publishing.

< Abstract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Ego-Identity and
their Adaptability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Hyun, Hee-Soon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ang-So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 of adolescent ego-identity and the adolescents' adaptability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result is expected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conflicts and changes, since it shows the development of their ego-identity. Also, it is expected to provide parents and teachers with the basic materials on how to understand and teach adolescents about their future career.

For this study, 800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by high school second-grade students in Cheju City and only 761 were used as data. The questionnaire were examined by the Cronbach' α for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AS program to estimated the frequencies,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One-way ANOVA, χ^2 -test, were used to verif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groups,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used for verific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sex, birth order, and a religious belief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adaption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Bu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ype of family, it showed that adolescents living with parents adapted to the family life better than those who weren't. Adolescents who shared of their problems with others adapted to the school life better than those who didn't.

2) A religious belief and birth order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 ego-identity level. Boys showed a higher ego-identity level in 'worth' among seven sub-variables of ego-identity than girls. Adolescents living with parents showed a higher ego-identity level in the subvariables of 'general ego-identity', 'worth', 'social adaptability', and 'self acceptance'. Those who shared of their problems with others showed a higher ego-identity level.

3) In examining parents' socioeconomic variables, the parents' ag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dolescents' adaptability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However, the study did show that the parents' academic career and job affected the adolescents' adaptability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The father's academic career caused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apting to both family and school life, whereas the mother's job only affected school life. The higher the family income, the better they adapted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4) The age of the parent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level of adolescent ego-identity. But parents' academic career had a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ather's job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variables of 'general ego-identity', 'value', 'social acceptance', and 'peculiarity', but the mother's job didn't. Those adolescents whose family had a higher income showed a higher ego-identity level.

5) Adolescents' ego-ident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adapting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The adolescents' ego-identity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adaptability to the family and school life. Those who had a higher ego-identity level adapted to both family and school lif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ad a low ego-identity level didn't.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자기이해는 건강한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으며 수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이용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설문지 전체를 못쓰게 되오니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 년 10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현 회 순

* 다음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난에 “V” 를 하거나 알맞게 기입하여 주세요.

1. 학생의 성별은 ? 남() 여 ()
2. 학생의 출생 순위는 ?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막내 5) 독남(독녀)
3. 부모님과 동거 여부는 ?
1) 동거 2) 이혼 3) 부 사망 4) 모 사망 5) 부모 사망
4. 부모님의 연령은 ?
1) 부 : 연령 ()세 2) 모 : 연령 ()세
5. 부모님의 학력은 ?
부 학력 1) 국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학원졸
모 학력 1) 국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학원졸
6. 가정의 총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0만원 이하 2) 101~150만원 3) 151~200만원
4) 201~250만원 5) 251만원 이상
7. 부모님과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번호를 써 주십시오.
부 : _____ 모 : _____ 학생 : _____
1) 불교 2) 천주교 3) 기독교 4) 기타 5) 종교없음
8. 학생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1) 건강·용모·체격 2) 학업성적·진학 3) 이성·친구관계
4) 성격 5) 가정문제
9. 학생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의논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1) 친구, 선배 2) 부모 3) 형제·자매
4) 학교 교사 5) 좀처럼 의논하지 않는다.

10. 학생 부모님의 직업과 일치하는 난에 “V”를 해주세요.

내 용		부	모
1)	전문·기술직 : 의사, 약사, 간호원, 회계사, 판·검사, 교원, 종교관계종사자, 언론인, 창작예술가, 연예인, 체육인 등		
2)	판매직 : 도·소매업, 판매외무원, 보험·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기업서비스판매원, 경매인, 감정인, 판매원, 점원 등		
3)	생산·단순노무직 : 운전사, 금속·목재가공 종사자, 재봉공, 제조공, 용접공, 전기·전자 수리공, 인쇄공, 장비조작공, 화물취급인 등		
4)	행정·관리·사무직 : 공무원, 회사원, 기업체 중역, 관리직 사원, 기업주, 속기사, 경리출납원 등		
5)	서비스직 : 요식·숙박업 관리자, 조리사, 가정부, 청소부, 건물관리원, 이발사, 미용사, 환경 미화원, 경찰관, 소방원, 안내원, 장의사 등		
6)	농·어업 : 농업, 어업, 수산업		
7)	무직, 주부		



* 다음 진술문들은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서술한 것입니다.

응답요령

학생이 생각하기에 문항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①	2	3	4	5
「별로 그렇지 않다」면 2에	1	②	3	4	5
「반 반이다」면 3에	1	2	③	4	5
「대체로 그렇다」면 4에	1	2	3	④	5
「항상 그렇다」면 5에	1	2	3	4	⑤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놓지 말고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별로 반 반 대체로 항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이 다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항상 나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가족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4. 내 가족들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우리집에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1 2 3 4 5
6. 나는 다른집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1 2 3 4 5
7. 나는 나의 가족관계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가능한 한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5
9. 나는 가족들에게 진실로 관심이 많다. 1 2 3 4 5

10. 부모님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가 많다.	1	2	3	4	5
11.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	1	2	3	4	5
12. 집에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1	2	3	4	5
13. 나는 항상 부모님이 나를 강요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1	2	3	4	5
14.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16. 부모님은 내가 착해서 좋아하신다.	1	2	3	4	5
17. 나는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1	2	3	4	5
18. 나는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많다.	1	2	3	4	5
19. 나는 우리집의 불화의 원인이다.	1	2	3	4	5
20. 나는 집에서 악하게 행동한다.	1	2	3	4	5
21. 나는 내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식구들과 잘 다투는 편이다.	1	2	3	4	5
23. 나의 가족은 나에게 실망을 느낀다.	1	2	3	4	5
24. 나는 집에 있으면 괴롭다.	1	2	3	4	5

* 다음 진술문들은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서술한 것입니다.

응답요령

학생이 생각하기에 문항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 면 1에	①	2	3	4	5
「별로 그렇지 않다」 면 2에	1	②	3	4	5
「반 반이다」 면 3에	1	2	③	4	5
「대체로 그렇다」 면 4에	1	2	3	④	5
「항상 그렇다」 면 5에	1	2	3	4	⑤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빼놓지 말고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별로 반 반 대체로 항 상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이 다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학교생활을 통해 나의 개성을 살릴수가 있다. ... 1 2 3 4 5
3. 우리반의 학급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1 2 3 4 5
4.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자주 일어난다. ... 1 2 3 4 5
5. 학과 공부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나는 학과 공부에 대한 기초실력이
 부족한 편이다. 1 2 3 4 5
7.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지적을 받을까봐 두렵다. 1 2 3 4 5
8. 나에게서는 흥미있는 과목이 별로 없다. 1 2 3 4 5

9. 공부시간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늘
고통스럽다. 1 2 3 4 5
10. 나는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다. 1 2 3 4 5
11. 시험치르는 일이 걱정이 되어서 학교생활이
늘 부담스럽다. 1 2 3 4 5
12. 나는 연습을 하기보다 발 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를 하곤한다. 1 2 3 4 5
13. 나는 잡념이 많이 떠올라 공부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나는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의 성적평가
방법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나는 공부를 잘했다고하여 상을 받아 본 일이
없다. 1 2 3 4 5
16. 나의 기대만큼 시험성적을 얻은적이 별로 없다. ... 1 2 3 4 5
17. 시험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입맛을 잃곤
한다. 1 2 3 4 5
18. 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 개인문제에
무관심한 편이다. 1 2 3 4 5
19.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0.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선생님이 별로 없다. 1 2 3 4 5
21. 나는 선생님이 무섭게 생각된다. 1 2 3 4 5
22.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만한 선생님이
없다. 1 2 3 4 5
23. 나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 ... 1 2 3 4 5
24.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1 2 3 4 5/

25.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별로 없다. 1 2 3 4 5
26. 나는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있다. 1 2 3 4 5
27. 나는 일단 친구를 사귀면 오래 지속한다. 1 2 3 4 5
28. 나는 친구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한다. 1 2 3 4 5
29. 나보다 유능한 친구를 보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다. 1 2 3 4 5
30.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1 2 3 4 5
31. 친구들과의 사귀이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2. 나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보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서술한 질문입니다.

응답요령

학생이 생각하기에 문항의 내용이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면 1에 | | ① | 2 | 3 | 4 | 5 |
| 「별로 그렇지 않다」 면 2에 | | 1 | ② | 3 | 4 | 5 |
| 「반 반이다」 면 3에 | | 1 | 2 | ③ | 4 | 5 |
| 「대체로 그렇다」 면 4에 | | 1 | 2 | 3 | ④ | 5 |
| 「항상 그렇다」 면 5에 | | 1 | 2 | 3 | 4 | ⑤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빼놓지 말고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지 않 다	혀 그렇지 않 다	별 그렇지 않 다	로 이 다	반 그렇다	반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1. 나에게는 나를 특정지워주는 독특한 면이 있다. ...	1		2		3		4	5
2. 나는 졸업 후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		2		3		4	5
3. 나는 남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	1		2		3		4	5
5. 나는 일관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면이 부족하다.	1		2		3		4	5
6.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 ...	1		2		3		4	5
7. 매사에 도전해 보고 싶은 용기가 부족하다.	1		2		3		4	5
8. 나의 미래상은 때에 따라 변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에 자신이 없다. ...	1		2		3		4	5
10. 내가 장래 어떤 사람이 될지 막연한다.	1		2		3		4	5
11. 나는 어떤면에서는 다른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1		2		3		4	5
12. 어떤 행동을 하고나서 내가 한 일을 후회할 때가 많다.	1		2		3		4	5
13. 나는 이성 친구들과 쉽게 친해진다.	1		2		3		4	5
14.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거부하다. ...	1		2		3		4	5
15. 나는 외부적인 변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 ...	1		2		3		4	5
16. 내 자신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낄때가 많다.	1		2		3		4	5

17. 장래 내가 어떤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18.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19.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0. 나는 두드러진 면이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 1 2 3 4 5
21. 모임에 처음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한다. 1 2 3 4 5
23. 내가 다른 환경속에서 자라 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4. 나는 사람을 사귀는데 까다롭다. 1 2 3 4 5
25. 나의 결점을 무엇으로도 메꾸어지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6.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1 2 3 4 5
27. 낯선 상황에 처할 때 마다 움추러드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8. 나는 남다른 경험이 없다. 1 2 3 4 5
29.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선뜻 실행하지 못한다. ... 1 2 3 4 5
30. 생활속에서 겪는 사건들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1. 갑작스럽고 커다란 사회의 변화를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1 2 3 4 5
32.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많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 1 2 3 4 5
34. 나와 다른점이 많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1 2 3 4 5
35.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주위상황 보다는
내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결정을 내린다. 1 2 3 4 5
36. 나에게는 평생을 바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 1 2 3 4 5
37.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38. 내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1 2 3 4 5
39.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내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가 없다. 1 2 3 4 5
41. 나에게는 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1 2 3 4 5
42.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은 결정되어 있다. ... 1 2 3 4 5

